

## 가구디자인에서의 문화정체성, 그 의미와 가치

최 병 훈 교수 (홍익미대 목조형가구학과)

### 1. 디자인과 문화정체성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을 실현하는 모든 형식과 활동 및 그 결과물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민족, 지역, 시대,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공유되는 보편적 행위양식으로서 관념, 태도, 행동, 대상물을 총괄한다. 이는 집단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삶과 행위양식의 전개에 따라서 유기체적으로 변화 발전하며, 유, 무형의 유산으로서 전승된다. 즉, 문화는 집단의 상징체계이며, 디자인은 그 상징체계를 가시적으로 실체화시키는 과정이자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문화의 표현이고 상징이면서 또한 한 시대의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는 지금 물질적 가치를 우선 시 했던 산업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보지식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 교통의 글로벌화로 인한 문화와 정보의 공유는 문화의 다원화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팽창을 가져옴으로써 국제 경쟁을 더욱 첨예하게 전개시켰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독자적인 문화정체성을 내재한 디자인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차별화 되는 국가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도구로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역이나 민족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를 토대로 한 고유의 디자인을 국제적인 가치와 감각으로 구체화하여 세계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고무시켰다.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업을 통하여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폭넓은 실험들을 전개하고 있다.

### 2. 가구디자인의 문화정체성

가구는 생활상과 사회상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이다. 한국은 풍토성과 민족성에 기인한 생활양식에 의하여 우리만의 정서와 조형의식으로 표현해낸 독자적인 가구문화의 전통이 있다. 그러나 근

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식민지배를 통한 전통 문화의 단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중심주의의 사고, 외래 조형사조의 끊임없는 유입과 무차별적 모방 등으로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조형 양식의 현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급진적인 산업사회화와 생활방식의 서구화 과정에서 형태와 기능은 서구의 것을 모방하고, 산업 논리에 의한 생산 방식은 물체만을 대량으로 복제할 뿐, 문화적 의미와 상징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외래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모방으로 디자인의 문화적 종속화와 정체성의 부재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의 본질, 문화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가구디자인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가 풀어가야 할 관건이다. 문화정체성을 내재한 가구디자인은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차별화 된 가치와 경쟁력 창출로 이어지며 문화의 다원화 시대에 세계의 가구문화 대열에 당당히 서기 위해 우리 가구문화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이미 가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화정체성을 내재한 가구디자인들을 구체화하여 많은 성공 사례들을 내놓고 있다.

이태리는 전위적인 실험정신에 기인한 art design으로, 핀란드는 휴머니티와 풍토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주의로, 프랑스는 창의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부드러운 프랑스이미지로, 그들만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여 차별화 함으로서 국제적으로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획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사례들을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연구하여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봄으로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가구디자인에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휴머니즘과 Naturalism의 조화 - 핀란드의 가구디자인

인간에 대한 철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고품격 스타일, 바로 핀란드의 디자인이다. 현대 핀란드 가구디자인은 지리적 풍토성에 의해 형성된 합리적 기능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인간존중의 휴머니티(humanity)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독자적 가구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핀란드 가구디자인이 그들만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생존을 위한 요구이다.

현대 핀란드 가구디자인을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국토가 지리적으로 완전히 북위 60도 선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여야 한다. 북구 특유의 혹독한 물리적 환경은 자연과의 투쟁과 공존이라는 그들만의 생존철학을 형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생존을 위한 요구는 가구디자인에서 독자적인 자연주의를 확립시켰다. 이는 가구가 자연 소재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했고 이에 따

라 장식은 보다 효과적으로 절제되었다. 핀란드인들의 생존을 위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리적 환경에 따른 ‘자연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으로 형성되어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이루는 기조로 남아 있다.

둘째, 독립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요구이다.

수백년에 걸친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 하에서 독립을 위한 요구와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는 자신들의 뿌리를 연구하게 하였고 스스로 그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모든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는 핀란드 특유의 민족적 낭만주의(National Romanticism)로 형성되었다. 디자인에서는 모든 조형 예술분야와 더불어 민족적인 형태와 모티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1917년 독립한 핀란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었으며,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동기에 고무되어 국가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게 되었다. 또한 실용성과 단순성이 강조되던 당시 국제적인 기능주의의 영향은 핀란드의 자연주의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차가운 금속 대신 나무의 고유한 특성과 감성을 강조한 핀란드 특유의 유기적인 기능주의(organic modern) 가구디자인으로 귀결된다.

셋째, 삶을 지속하기 위한 요구이다.

핀란드인들의 미래 환경에 대한 배려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환경의 질(quality)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인류의 자연환경에 대한 미래가 세계적인 문제로 직면한 현대에 이르러 친환경적인 가구디자인의 개발은 인류의 삶을 위한 공통된 과제가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자연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자연관과 어우러져 생태학적 가구디자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소수를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인간 존중 사상은 인류의 공존과 복지의 실현을 추구하는 휴머니즘 철학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핀란드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핀란드 가구디자인의 세계적 가치이다.

이상과 같이 핀란드 가구디자인은 장소(지리와 생태), 시간(역사), 인간행위(문화), 그리고 국제교류(정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들의 토양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해왔다. 인간존중과 자연주의 사상에 기반한 그들의 높은 민족적 자긍심은 디자이너와 산업을 통해서 독특한 민족문화를 창출함과 동시에 핀란드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아방가르드 정신과 ART DESIGN - 이태리의 가구디자인

인간 감수성에 호소하는 감각적 디자인, 하이테크와 미적 형태의 조화, 정형이 없는 예술적 디자인으로 현대 가구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이태리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은 전위적인 실험정신과 창조적인 예술성에 있다. 이러한 그들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기후와 풍토성에 기인한 이태리 특유의 민족정서이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강렬한 태양은 낙천적이고 감수성이 강한 민족정서와 라틴계 특유의 정열적인 감성을 형성하였다. 삶을 즐기고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가구디자인에서 표현적인 색채와 형태, 유희적인 디자인, 감성의 교감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둘째, 유구한 문화적 전통과 강한 예술적 자긍심이다. 고대 로마와 중세 르네상스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은 유, 무형으로 이태리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고대 로마의 메세나 운동이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사상과 이상적인 미에 대한 추구는 예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창조에 대한 열정과 인간 개성을 향한 존중의 정신을 배양시키며 현대 이태리의 미의식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비롯한 천재적 예술가들의 영향은 이태리 민족의 천재적 예술성에 대한 높은 긍지와 함께 과학 = 예술 = 디자인 =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기능까지도 예술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 현대 가구디자인에서 ART DESIGN으로 나타난다.

셋째, 장인정신과 실험정신의 조화이다. 중세 르네상스의 문화유산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지는 이태리인의 장인정신은 가족중심의 중소기업형으로 발전하는 이태리 특유의 산업구조 속에 전통적인 가구제작의 노하우와 첨단 신소재의 기술을 결합시키면서 최근의 세계 가구디자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신소재 개발은 목재와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이태리로서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연적인 것이다. 여기에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창조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방가르드로서 실험정신의 결합은 이태리 현대가구디자인이 세계 트렌드를 리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가구디자인의 가치 창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가구디자인에 확립할 것인가. 이에 앞서 우리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과정이 먼

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문화를 형성한 요인들, 즉 풍토, 역사, 신앙, 민족성, 생활의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전통문화 속에 흐르는 의식의 원류를 찾아내어 오늘의 시대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는 현대 한국 가구디자인이 확립해야 할 문화정체성의 지표가 된다.

### 가. 한국 전통가구의 문화정체성

목재의 자연적 소박함과 수수하며 가식 없는 견실한 조형 양식으로 격조 높은 내면세계를 표현한 한국의 전통가구는 ‘無爲自然主義’와 ‘절제의 미’로 대표되는 함축적 미학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는 어떠한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는가.

첫째, 자연에 대한 순리주의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자연에 대한 순리주의 사상은 한민족에게 자연과의 융합과 조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순응이며 자연 현상의 순수한 수용으로서 한민족의 자연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연주의 사상은 자연미를 추구하는 미의식을 형성하였다. 즉, 인간의 손에 의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미가 아닌 자연상태 그대로의 순수성을 미의 이상향으로 삼았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가구는 인공적인 기술의 결과보다 자연소재의 아름다움을 찾아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전통가구는 자체의 자연미와 더불어 주위환경이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無我無念의 철학이다.

한민족은 자연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아의식이 배제된 순수 無我無念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이는 자연미를 추구한다는 의식마저 소멸되어 버리고 인위적인 기교와 의식을 떨쳐버린, 일종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미의식의 발로이다. 自我가 배제된 순수 無我的 경지에서 추구되는 한민족의 미의식은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표현으로 구현되나 실은 내면에 무궁무진한 맛과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밀한 세부표현의 기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로움을 추구하여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시적 안목의 미의식으로 한국 전통가구에서 구현되고 있다.

셋째, 절제와 겸양의 美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한민족의 정서는 외적인 허세와 가식을 배격하고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며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미덕으로 형성되어졌다. ‘겸양의 미’는 단순, 간결, 솔직, 편안, 친근, 부드러움, 적막함 등

의 함축적이고 신비한 미를 표출한다. 이는 근시안적인 잔재주와 작위적인 의식을 배제하고 선비정신의 여유와 유연함 속에 담백하고 순수한 실용적 형식인 ‘절제의 미’로 다시 창출되어진다. ‘절제의 美’와 ‘겸양의 美’는 한국 전통가구에서 자기과시의 화려한 장식과 권위주의 형식 없이 담담하고 수다스럽지 않은 절제된 형태와 실용적인 형식을 창출해 냄으로서 한국 전통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 나. 한국 현대 가구의 문화정체성 확립 방향

한국의 전통가구는 한국의 풍토와 사상, 그리고 생활의식으로 형성된 문화정체성을 고유의 조형 언어로 구체화하여 문화적 생명력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가구가 내재한 ‘자연주의 정신’과 ‘절제미의 추구’는 현대 인류의 생활 패러다임인 자연과의 조화와 정신적 가치의 추구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정체성이 이미 세계적 가치 요소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 문화 속에 흐르는 우수한 문화 정체성을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동시대에 적합한 조형체계로 발전시켜 가구디자인에 창조적으로 구체화하였을 때 비로소 현대 한국 가구는 독자적인 문화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한 한국의 현대 가구가 세계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조적 의지로 인류애의 증진과 환경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내재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풍요로운 발전을 향한 디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문화의 시대에 세계문화를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민족 의지의 발산이다.